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기 2004년(불기 2548년) 1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 457 호

인도 녹야원에 첫 한국불상 모시던날

대각회 본당 앞에서 기념 촬영한 아로라 바라나시 도지사, 수메다 대각회 사무총장, 혜총 · 암도 · 혜용 스님(왼쪽부터)

부처님 첫 설법 큰 메아리로 두루 퍼지길…

황금 마차에 모시고

한국과 인도의 전통 이운식이 함께 치러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은 이번 법회는 녹야원 입구에서 법주 혜총 스님과 암도 · 혜융 스님 정선진 1군사령부 법웅사 주지를 태우고 꽃으로 수놓아진 황금마차에 불상을 싣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스리랑카 스님들의 주악에 맞춰 리선행 횡성 죽림산사 주지,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대열을 맞춰 행진했다.

이렇게 5분여 동안 인도식으로 이운된 불상은 행사장인 녹야원내 대각회 본당앞에 기다리고 있던 수메다 스님과 아로라 도지사 등 인도측 인사들의 영접을 받으며 초전법륜상을 주불로 한 법단 오른쪽 협시불로 모셔졌다.

대각회 본당 밖에서의 의식이 인도식이었다면 안에서는 예불과 정근, 염불 등 철저한 한국 전통의식으로 거행됐다.

30여분간의 이운 봉안의식이 끝나자 수메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72년 인도와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과 인디라 간디 수상의 교류를 시작으로 30년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게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불교문화 교류가 양국간에 더욱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기념메시지를 암도 前조계종 포교원장이 대독했으며 법주 혜총스님의 법문, 녹야원 경내 순례,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만난 미슈라 산스크리트대학 부총장은 "한국불상의 이운식은 생전 처음 봤다"며 "조금은 길게 느껴졌지만 정성스럽게 모시는 한국 스님들과 불자들의 불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공식행사가 끝난뒤에는 수메다 스님은 대각회 본당 지하에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한국불자에게는 처음으로 공개하며 불자들에게 일일이 친견토록해 환희심에 젖게했다.

이억만리 한국에서 이운된 한국 부처님은 이제 영원한 보금자리인 이곳 녹야원 대각회 본당에서 세계 불자들의 참배를 받으며 자비의 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녹야원 = 김주일 기자 · 사진=송용호(사이버 강원 붓다의 메아리 대표)**

한국과 인도의 스님들이 녹야원 안에 있는 대각회 본당에서 한국 전통의식으로 한국에서 이운된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법장 스님 기념메시지(요약)

뜻깊은 한-인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계에서는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에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조성된 불상을 처음으로 봉안하는 불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이셨던 스리랑카의 다르마팔라 선생이 힌두교로부터 불교성지의 수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해 놓은 이곳 녹야원 사찰에 한국전통 양식의 부처님을 봉안하게 된 것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이후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성지 답게 한국과 인도의 불교교류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 불사의 공덕으로 세계의 불자들이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 지성적인 신앙으로 전환해 올바른 불교관을 지니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안락과 자유를 누리는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불사가 여법하고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흔쾌히 한국불상을 맞이해주신 대각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불사에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가져주신 한국의 모든 불자님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봉안된 불상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 모델 목불에 개금, 제작 1백일 소요

이번에 봉안된 불상은 목불로서 경주 석굴암의 본존불을 본뜬 것이다.

결가부좌한 두 다리의 중앙에 왼손을 놓고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이른바 항마촉지인상(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며 땅을 짚어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증명하는 손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주력했다. 석굴암 본존불의 실제 높이는 3.4m이지만 이번에 제작된 목불 본존상은 높이 90㎝, 좌대 120㎝, 폭 65㎝로 축소시켜 개금한 것이다. 재료는 소나무를 사용했으며, 제작기간은 1백일이 소요됐다.

또한 목불 조각은 강영재 불교 조각원장이, 개금은 박갑용 불광불교미술원장이 각각 작업했다.

모셔진 사찰은?

▌녹야원 지부가 있는 대각회 본당, 많은 스님 배출

이번 행사가 치러진 대각회 본당은 스리랑카 근대불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다르마팔라(Dharmapala:1864-1933)가 조직한 대각회(Mahabodhi Society of India) 녹야원 지부가 있는 곳으로 사무총장인 수메다 스님이 주지를 맡고 있다.

이 안에는 무르간다쿠티비하라(대각회 본당) 사원이 있어 티베트, 스리랑카,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국가들의 불상이 모셔져 있지만 유독 한국불상만은 없어 성지를 방문한 한국불자들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한-인수교 3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인도 불교와의 교류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또한 주요한 불교성지마다 대각회를 조직해 많은 스님들을 배출하고 있다.

인터뷰

법주 혜총 스님

"한국불자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부처님께서 이곳 성지를 찾는 전 세계인으로부터 예배 받으심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녹야원 한국불상 봉안 대법회 회주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 불국토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의의를 이렇게 털어놨다. 스님의 인도 성지순례는 이번이 벌써 9번째. 적지않은 방문횟수이지만 이번 순례는 스님에게 있어 남다르다. 한국의 독특한 정신문화로 자리잡은 불교의 미가 담겨진 한국불상을 인도에 모시는 불사의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5비구를 만나 최초로 전법하심으로 마침내 불교가 탄생된 이곳에 한국불상을 모시는 불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불상 점안을 계기로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고 의의를 밝혔다.

불상봉안 동참자 명단

혜총큰스님 이선행법사 각목스님 강경아 강경필 강경희 강명석 강명수 강명철 강미리 강민호 강병욱 강보석 강봉원 강봉율 강선희 강수균 강수옥 강순례 강순자 강승록 강신보 강옥녀 강우섭 강인묵 강장원 강정순 강종우 강창기 강태부 강태종 강태진 강호용 강화경 경동스님 경무스님 경법스님 경본스님 경상스님 경성스님 경소스님 경여스님 경원스님 경적스님 경제스님 경주김씨조모 경증스님 경진스님 고군찬 고금순 고금자 고동환 고례자 고명환 고봉준 고상진영가 고성옥영가 고성일 고승훈 고신순 고씨수자령 고연재 고영미 고음연영가 고태용영가 고학용영가 고해숙 고화궐 공기원 공덕화 곽순희 곽종봉 곽진숙 구교범 구근회 구봉현 구수민 구승회 구연식 구원용 구원회 구정민 구정옥 구정은 구창열 구충서 구형서 구홍기 구활림 권 일 권기현 권남표 권동준 권명숙 권명순 권목장 권미경 권미정 권민정 권선화 권순남 권순익 권식장 권연경 권영근 권영태 권오웅 권오준 권오희 권용민 권유진 권재욱 권정현 권준범 권진현 권창범 김갑순영가 김강민 김건영 김건준 김경미 김경연 김경일 김경자 김경주 김경희 김공남 김광덕 김광삼 김광연 김규남 김규영 김규진 김규화 김금미 김기덕 김기철 김기환 김기환 김길순 김길영 김길자 김나영 김남성 김다희 김대도행 김대성심 김대열 대홍 김대훈 김덕민 김덕제 김도연 김도연 김도형 김도형 김도형 김동석 김동성 김동숙 김동승 김동원 김동원 김동춘 김동후 김만자 김 명 김명자 김명자 김명자 김명재 김명재 김명진 김묘희 김무률 김무제 김문정 김미경 김미숙 김민경 김민국 김민선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방성 김벽공 김병호 김보람 김보문승 김보민 김복덕 김복순 김봉곤 김봉관 김상근 김상남 김상민 김상민 김상수 김상우 김상현 김상현 김상호 김상호 김상훈 김서연 김서현 김석기 김석기 김선희 김설희 김성권 김성길 김성봉 김성수 김성호 김세빈 김세영 김세진 김세혁 김소연 김수경 김수동 김수미 김수민 김수봉 김수옥 김수진 김수진 김수철 김수현 김수현 김수환 김수희 김숙자 김숙화 김순익 김승한 김승환 김시순 김안석 김양자 김양희 김여경 김연경 김연선 김연향 김영경 김영남 김영두 김영미 김영봉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식 김영옥 김영옥 김영위 김영은 김영학 김영희 김예린 김옥경 김옥순 김옥자 김용수 김용숙 김용재 김용집 김용철 김용태 김용태 김용환 김원건 김월도 김유경 김유경 김유동 김유선 김유섭 김유진 김유태 김윤진 김윤한 김은경 김은동 김은숙 김은아 김은희 김은희 김의현 김인수 김인환 김일광화 김일정 김잔디 김잠수 김재곤 김재규 김재달 김재민 김재수 김재연 김재원 김재윤 김재헌 김재현 김정란 김정숙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옥 김정웅 김정이 김정자 김정태 김정한 김정해 김정호 김정화 김종덕 김종돈 김종민 김종선 김종영 김종현 김주성 김주현 김주환 김주희 김준형 김중규 김중산 김중호 김지선화 김지성 김지영 김지혜 김진겸 김진근 김진묵 김진상 김진석 김진수 김진수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우 김진웅 김진혁 김진홍 김창갑 김천대휴사 김철기 김철기 김철완 김춘자 김치곤 김칠성 김태권 김태영 김태용 김태우 김태우 김태현 김태훈 김태훈 김판려 김평래 김필성 김해동 김해련 김현광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형곤 김형석 김형수 김형철 김형택 김혜숙 김혜정 김혜준 김혜진 김혜진 김홍일 김효은 김효정 김효진 김희백 김희선 김희연 김희종 김희진 김희찬 김희철 나미현 나정행심보살 노두진 노명구 노미선 노상윤 노선옥 노세희 노영국 노용덕 노윤선 노윤성 노중식 노태훈 노형구 대덕화 대련화 대원성 대원행 대자화 도경민 도상수 도선사 도원일 도은스님 도이스님 도종이 도현소 도현지 라승호 류인석 류화순 마숙원 명심행 문경숙 문기식 문선희 문성희 문수경 문수경 문원규 문유순 문인재 문필연 민병권영가 박건무 박경란 박경수 박경식 박경우 박경희 박계연 박관용 박규태 박기택 박길홍 박남숙 박노순 박덕섭 박덕원 박동원 박두성 박두철 박만석 박말수 박명조 박명희 박명희 박무진등 박문자 박미경 박미정 박민정 박민지 박병근 박병남 박병주 박병철 박봉국 박봉기 박봉진 박부정 박분경 박상영 박상욱 박상진 박상호 박상환 박성덕 박성복 박성우 박성호 박성환 박성희 박세찬 박소기 박소안 박소현 박소현 박소희 박수연 박수정 박수진 박수행 박수흠 박순금 박순용 박순자 박순칙 박승배 박승열 박승우 박시윤 박신흡 박애우 박애진 박연식 박영수 박영자 박영주 박영철 박영호 박영희 박용하 박원표 박원호 박유분 박육경 박윤욱 박이소 박인숙 박인정 박인주 박임태 박임호 박재민 박재범 박재성 박재일 박재현 박재홍 박정령 박정미 박정인 박정현 박종수 박종식 박종업 박종원 박주희 박준섭 박준식 박중근 박중선 박지연 박지우 박지호 박진상 박진선 박진섭 박진성 박진영 박진홍 박찬규 박창근 박창수 박창수 박천묵 박태영 박태오 박태준 박판석 박판용 박현경 박현정 박현주 박혜정 박희옥 배금례 배기순 배기엽 배동수 배성모 배성연 배성용 배수언 배수정 배수진 배영미 배영환 배옥성 배정임 배정호 배정희 배정희 배준범 배지선 배지훈 배진호 배찬수 배춘자 배혜주 배화열 백강문 백련화 백승국 백승현 백영아 백재희 백점례 백한수 법희큰스님 변봉현 변종원 변진환 변창현 변형철 보경큰스님 보안큰스님 보현행 본심행 서광호 서귀임 서덕수 서명성영가 서미옥 서부웅 서성국 서성근 서성호 서영미 서영일 서영주 서영주 서윤주 서은영 서은해 서정우 서정창 서종환 서현덕 서현석 서혜숙 석광호 석도각 석도견 석법상 석보성 석삼현 석성념 석세원 석영공 석영도 석영인 석일도 석재은 석정우 석정원 석종진 석지월 석지형 석현석 선본사 성락진 성애숙 성우스님 성중월 성홍조 손대숙 손무길 손법륜경 손상규 손상주 손성원 손성현 손수만 손순자 손승희 손욱주 손정민 손희동 송강욱 송경주 송동현 송명욱 송변재 송부권 송상원 송성희 송수완 송승훈 송암스님 송재현 송정자 송지현 송지훈 송태훈 수정스님 신 흔 신규식 신근영 신기용 신덕남 신무동 신미선 신병균 신봉훈 신선기 신약자 신옥남 신옥자 신용진 신우용 신운주 신유진 신재식 신정년 신정희 신진균 신진우 신태동 신현대 신현미 신현석 신현수 신호동 실상화 심갑연 심우수 심재영 심지행 심진호 안덕자 안도연 안두기 안득만 안락행 안봉율 안성준 안성현 안세혁 안순희 안승진 안연숙 안영환 안종호 안지영 안지현 안호진 안희순 양봉모 양성보 양원형 양인학 양정환 양지영 양진호 양진희 양춘우 양해동 양현진 양화진 양효선 양효섭 엄기목 엄대호 엄윤성 엄종호 여래심 여여회 여영숙 연화심 영재스님 오경화 오근효영가 오금순 오도현 오동훈 오명길 오시남 오연진 오영국 오영승 오용연 오재민 오정민 우경배 우덕선 우상욱 우서림 우선정 우성기 우유정 우일곤 우지영 우지원 우진용 우태욱 우한택 우현욱 원담스님 원명심 원순자 원종례 원종분 위영란 유경태 유문자 유상기 유승훈 유연정 유영복 유점순 유진희 유차선 유춘발 유춘식 유춘화 유충회 유호명 윤도홍 윤두경 윤미영 윤보연 윤상규 윤상철 윤선미영가 윤영욱 윤용수 윤용한 윤웅상 윤원욱 윤을정 윤재혁 윤정현 윤정희 윤주은 윤지연 윤지원 윤지환 윤춘옥 윤회선 이 강 이 봉 이 숙 이 찬 이감로우 이강옥 이강윤 이강혜 이강호 이강희 이경남 이경묵 이경미 이경미 이경수 이경숙 이경애 이경주 이경진 이경춘 이경훈 이광철 이구자 이규만 이균석 이균창 이금연 이기호 이기호 이기홍 이기환 이길모 이난희 이대각심 이대범 이대선 이동수 이동준 이동준 이동현 이동호 이 란 이륜경 이륜민 이만규 이만희 이매방 이명건 이명덕월 이명석 이명숙 이명순 이묘법화 이무웅 이미숙 이민지 이민지 이법성각 이벽덕 이병도 이병윤 이병주 이병태 이봉수 이상락화 이상미 이상수 이상수 이상영 이상오 이상원 이상재 이상전 이상하 이상호 이상호 이상희 이새봄 이석규 이선봉 이선아 이선옥 이선제 이성기 이성도 이성한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성희 이소공 이소은 이송이 이수근 이수남 이수민 이수자 이순기 이순자 이승록 이승민 이승우 이승원 이승윤 이승은 이승주 이승희 이시우 이아름 이애선 이양도 이연수 이영갑 이영경 이영기 이영선 이영섭 이영식 이영웅 이영철 이영춘 이영현 이영희 이예진 이옥순 이옥자 이옥자 이용식 이우근 이우담 이우삼 이욱태 이윤훈 이유진 이유진 이윤식 이윤섭 이윤섭 이윤철 이은석 이은정 이은철 이의석 이인우 이인자 이인현 이일섭 이일현 이일희 이임수 이재덕 이재모 이재성 이재수 이재양 이재영 이재이 이재일 이재준 이재환 이점옥 이점찬 이정란 이정미 이정민 이정분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현 이정호 이정화 이정희 이종길 이주원 이주현 이주형 이준석 이준석 이준엽 이준영 이준영 이준영 이준우 이지연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진경 이진옥 이진옥 이진욱 이진철 이차임 이찬주 이창규 이창민 이창섭 이창우 이창익 이창종 이철건 이춘성 이춘영 이충효 이판도 이필래 이학기영가 이향석 이해미 이해탈심 이행로 이현용 이현정 이현주 이형민 이형석 이혜령 이혜월성 이혜지 이혜진 이호근 이호섭 이호성 이홍엽 이화섭 이화영 이효진 이희숙 이희순 인완스님 일심화 임문택 임송권 임숙이 임순애 임영희 임옥남 임완수 임종덕 임종칠 임지혜심 임채길 임채희 임치삼 임현분 임현섭 임현순 임호균 임호준 임효진 자비행 자심행 자운큰스님 장나영 장낙도 장남규 장덕중 장미순 장병희 장사유화 장서윤 장선주 장성자 장성현 장세홍 장세훈 장수경 장승호 장영아 장용석 장우혁 장윤선 장윤이 장윤정 장윤희 장인선 장인영 장재훈 장정숙 장정원 장정훈 장지영 장진호 장창변 장태웅 장현숙 장화춘 전 용 전경재 전도홍 전민정 전복조 전봉수 전상현 전인숙 전재덕 전재연 전주현 정 용 정겸스님 경덕 정경묵 정경숙 정경한 정경호 정관옥 정금옥 정금자 정기수 정기철 정기철 정길소 정다운 정대현 정동규 정동수 정동완 정두리 정말술 정명용 정미숙정민수 정민재 정민철 정민환 정병훈 정보명화 정보훈 정봉원 정상률 정상복 정석문 정석현 정선례 정선우 정수민 정수스님 정수영 정순녀 정순영 정승열 정승영 정시링 정신혜 정연석 정연옥 정연옥 정영식 정영희 정영희 정우란 정우진 정유민 정윤정 정은교 정은미 정은애 정은주 정은지 정인악 정재운 정재원 정정채 정종민 정종석 정종준 정준한 정지문 정지성심 정지인 정진국 정진숙 정진우 정찬우 정철곤 정점원 정한표 정현옥 정현정 정형순 정혜월 정혜진 정휘영 정희은 정희재 제철스님 조건형 조경자 조경제 조경호 조경희 조광희 조국제 조규식 조나현 조덕선행 조맹녀 조민영 조민정 조민정 조불국심 조상만 조성근 조성근 조성덕 조성애 조성애 조성연 조성연 조신용 조양문 조용덕 조용찬 조용환 조용희 조윤성 조은경 조인승 조인승 조정용 조준호 조준희 조진혁 조태을 조혁진 조호진 조홍선 주경록 주운영 주차범 주판오 지오식 진구호 진두희 진봉호 진불화 진선엽 진여심 진여심 진영남 진영준 진원정 진원태 진인태 진태관 차민정 차치덕 채경훈 채미성 채병하 채지훈 천명림 천세방 천세엽 천승민 천예슬 천정주 천진성 천진홍 천진화 천필순 최 린 최강락 최광규 최규진 최기영 최대광 최대일 최동길 최동현 최면철 최문철 최미옥 최민혁 최병주 최병찬 최보영 최상년 최석규 최성근 최성우 최수완 최수직 최순심 최순애 최순임 최순점 최악이 최연우 최연자 최영도 최영락 최영미 최영숙 최영완 최영우 최영재 최영환 최옥립 최옥매 최옥분 최용석 최용원 최욱진 최원준 최윤석 최윤영 최은진 최응수 최익현 최일훈 최재일 최재혁 최재훈 최재훈 최점심 최정문 최정일 최종국 최종미 최종숙 최종순 최종열 최종춘 최종화 최종환 최준영 최준혁 최지영 최지원 최진종 최찬희 최창식 최철호 최태식 최하령 최한우 최해영 최해일 최현진 최현희 최형식 최혜경 최혜영 최화영 최희원 추경우 추경준 추민승 추연호 추현서 추현재 추현주 태상록영가 태숙이 태준열 태현민 평등심 표월순영가 하상범 하성숙 하승우 하유선 하주현 하태환 하호철 한녕완 한대원심 한동주 한동훈 한마음광주지원 한명혜 한명혜 한명희 한문영 한문정 한법찬 한상현 한서영 한성규 한성수 한수영 한수진 한승윤 한오규 한응규 한의규 한정아 한정훈 한지현 한진국 한태진 한평자 한현주 한현진 함안조씨조모 함옥창 해탈심 해탈화 허선영가 허기영 허노정 허문자 허병혁 허복흥 허연희 허영순 허외조 허용도 허윤석 허윤호 허점순영가 허정옥영가 허정치영가 허정희 허춘자영가 현대연 현재민 홍경수 홍묘선 홍선주 홍성재 홍수경 홍순덕 홍승덕 홍영준 홍영진 홍옥희 홍은주홍인표 홍정봉 홍종임 홍종임 홍주연 홍진경 홍혜숙 홍희경 홍희표 화계사성광스님 황광자 황금순 황기준 황무위행 황상미 황송자 황시형 황신자 황영숙 황우임 황윤진 황은지 황의태 황일용 황종일 황혜경